

# 용산역-광주역 운행시간 조정…환승 최대 26분 단축

30일부터 시행 북·동구민 교통편의 기대 정준호 “광주역-송정역 서틀 폐지 대안”



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북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광주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개선 방안으로 일반열차 5편의 운행 시간을 조정해 환승 대기 시간을 최대 26분까지 단축했다. 또한 현행 광주-익산 행 무궁화호를 ITX-마음 열차로 교체하고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편했으며, 광주-용산 무궁화호 2회를 ITX-새마을 열차로 변경해 승객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말부터 서울 용산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열차 이용 시간이 단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은 15일 “오는 30일부터 용산-익산-광주역을 오가는 상·하행 5편 열차의 익산역 환승 시간이 최대 26분 단축된다”고 밝혔다.

평균 31분이 소요되던 환승 대기 시간이 평균 16분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광주역 이용 승객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차권 판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2015년 광주송정역 개장 이후 광주의 중심역이었던 광주역에는 KTX가 정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역 이용 승객들은 ITX·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로 환승해야 했고 장시간 대기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용산역-광주역 구간 이용객들은 익산역에서 일반열차로 환승하기 위해 평균 31분을 대기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소요시간 평균 3시간 5분 중 약 6분의 1이 환승 대기시간으로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환승 대기시간은 최대 40분에 달했다. 더욱이 2023년 12월부터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서틀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북구와 동구 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성은 더욱 저하됐고 그 여파로 광주역과 인근 북구 지역 상권 역시 크게 침체됐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올해 10월 국토교통위

정준호 의원실이 환승 개선 이후 광주 북구 주민들의 서울-광주송정역 이용과 서울-광주 열차 이용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두암동 도착 기준 광주역 이용 시 교통비가 약 4천300원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역 이용 시에는 익산역 열차 환승과 버스 환승을 거치며 비용은 최소 4만3천750원(열차 4만 2천500원·버스 1천250원), 소요 시간은 최소 3시간( KTX·일반열차 2시간7분·버스 14분)이 걸린다.

반면, 광주송정역 이용 시에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거쳐야 하며 소요 시간은 최소 2시간48분( KTX 1시간53분, 지하철·버스 50분), 비용은 4만8천500원으로 분석됐다.

정준호 의원은 “2023년 광주역-광주송정역 서틀 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며 “환승 개선은 서틀 열차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된 만큼 광주역과 연계한 KTX 이용 편의를 높여 교통소외 지역인 북구와 동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건 249건·27명 기소…尹 등 3명 구속

### 내란특검 180일의 기록

#### 238명 ‘매머드급’ 팀 5일만 수사 개시

#### 3주일만에尹신병 신속 재확보 성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조 특검은 지난 6월12일 임명된 후 박여수·박지영·이운재·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238명으로 특검팀을 꾸렸다.

특검팀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

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복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도 기소했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군 관계자 6명,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등 3명의 신병도 새롭게 확보했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주 의원, 황 전 총리, 김 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존에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증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을 중 5일만 사용하고 구속자 석방 방지를 위한 신속 수사를 개시했다”며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에 따라 형사재판 1심이 처음으로 중계된 점도 언급했다.

특검팀은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국민이 비상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공개로 국민이 국무위원의 행태와 거짓을 직접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외환 사건의 경우 국가 이익을 우선에 두고 군사 작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신정훈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참배

### ‘진실규명·피해 회복 끝까지 쟁길것’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15일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신 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서장수 유족회 여수회장은 “신 위원장이 국회에서 관련 법과 예산을 끝까지 쟁겨온 만큼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여순사건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와 지역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유족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여순사건지원특별법 연장,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체계 정비, 유족회가 요청해온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예산 확보 등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필요한 일들이 하나씩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위원 구성 논란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사회와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국회가 뒷받침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며 “여순사건 문제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전남 공동체의 회복이자 미래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권리 보장·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 권리 보장·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로 2025년 기준 2조5천323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다. /김진수기자

##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